



우생학의 역사

우생학(Eugenics)이란 그 용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Eu는 '좋다'는 뜻이고, Genics는 '태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Eugenics는 쉽게 말하자면, '좋게 태어났다'는 뜻이다. 우생학이란 용어는 1883년 프란시스 갈튼(Francis Galton, 1822-1911, 영국)에 의해 만들어졌고, 진화론과 함께 발전되었으며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 프란시스 갈튼은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고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은 후 '새로운 지식세계'에 들어온 것에 대한 기쁨을 전했으며, 그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원했다!

얼핏 용어만 들으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다'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것과, 우생학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려 했는지를 깨달으면 그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형이나 질병이 없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우생학을 온 인류에게 적용하려 했던

나치에게는 푸른 눈과 금발을 의미했다. 따라서 우생학에서 말하는 ' 좋게 태어난다'의 의미를 사회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생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만을 보전함으로써 인류의 진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프란시스 갈튼의 우생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 찰스 다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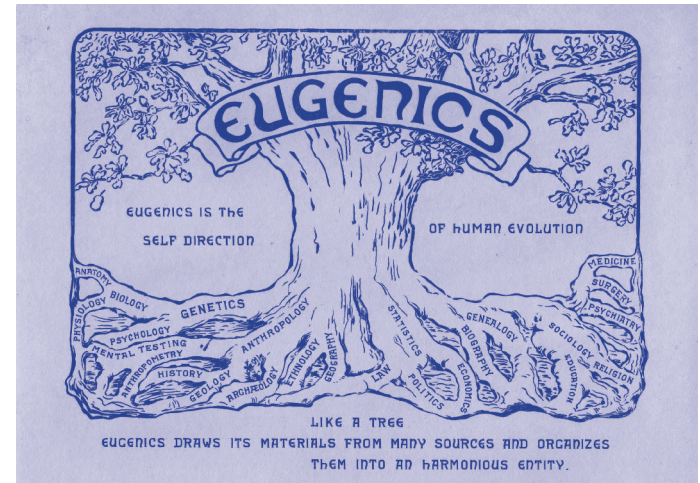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약자들은 그들의 종류를 번식시킨다. 가축들을 교배시켜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부주의, 혹은 잘못된 방향의 보살핌이 얼마나 빨리 한 가축종의 약화를 가져오는지 매우 놀랍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경우를 제외하면, 최악의 동물들이 교배하도록 허용할 정도로 어리석은 경우는 거의 없다.”²

결국 가축을 교배할 때, 원하는 품종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교배하게 함과 동시에 필요한 형질을 갖지 못한 개체들은 제거하거나 더 이상 교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동물 중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축의 품종개량과 같은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프란시스 갈튼 자신 역시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되고 바람직한 사람들은 번식해야 하지 않을까?”³

앞서 언급했듯, 나치 독일이 바로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북유럽인들은 가장 ‘진화한’ 인종이었고, 동양인들과 흑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화되지’ 못한, 원숭이에 가까운 인종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덜 진화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더 진화된 사람들만 남겨 진화의 속도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땅에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실로 제2차 세계대전은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이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시도로 인해 발발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광범위한 인종학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생학의 원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파고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생물학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현재에도 존재한다.

우생학 운동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나치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에서는 그렇게 대중적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하

지만, 미국에서는 록펠러(John Rockefeller, 1839-1937),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 켈로그(Will Kellogg, 1860-1951)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수 있는 거부들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아서 사회 전반으로 상당히 빠르게 퍼져나갔다. 우생학 소사이터, 컨퍼런스,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고, 과학 논문들이 출판되었으며 각 대학에는 우생학부와 학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1921년 국제 우생학 컨퍼런스 로고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Self-direction of human evolution”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진화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인간이 최종 권위라고 하는 인본주의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우생학자인 폴 포페노(Paul Popenoe, 1888-1979)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적 통제하에서 인종이 영원히 발전하도록 하는 유일한 희망은 자연의 선택적 사망속도를, 선택적 탄생속도로 대체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우생학이 의미하는 것이다.”⁴

그는 자연선택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은 자연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는 어떤 사회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어떤 사람의 외모나 피부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을 배운다.

우월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는 것도 인간의 진화를 방해하고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불임이나 낙태를 통하여 출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서 엄청난 수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기관인 Planned Parenthood의 창시자인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 1879-1966, 미국)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직된 사회사업 그 자체는 사회의 악성 질환의 증상이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의 결함 있고,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낳아 왔다.” “따라서, 나의 비판은 자선사업의 실패를 향한 것이 아닌, 자선사업의 성공을 향한 것이다.”⁵

그들은 약자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살아남게 하는 의사들과 기독교인들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약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를 만들려고 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우생학적 원리가 사회에 적용되어서 미국의 30개 주에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집단”에 대한 불임법이 제정되었고, 1900년에서 1970년까지 보고된 것만 6만명에서 7만명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submerged 10”이라 불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신이 박약한 사람들; 두 번째, 극빈자 계층; 세 번째, 알코올 중독자; 네 번째,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과 잡범들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들; 다섯 번째, 간질환자 (편두통 환자들을 포함...); 여섯 번째, 정신 이상자들; 일곱째, 병약한 계층; 여덟 번째, 특정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 아홉 번째, 기형아; 열 번째, 감각기관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 즉 귀머거리, 소경, 그리고 병어리.”⁶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이런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후대로 유전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가치있는 사람들을 보전하고 가치없는 사람들은 제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진화를 촉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는 어떤 사회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어떤 사람의 외모나 피부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성경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명확히 말씀하신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 22:21-23)

유토피아는 약한사람들을 제거하고 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번역/이충현

참조

1. Francis Galton, Essay in Eugenics (London: Eugenics Education Society, 1909), p. 42
2.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1st edition (London: John Murray, 1871) pp.168 - 169
3. Francis Galton, Quoted from Karl Pearson, Letter, and Labours of Francis Gal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v. 3A, p.348
4. Steven Selden, Inheriting Shame: The Story of Eugenics and Racism in America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1999), p.11.
5. Margaret Sanger, The Pivot of Civilization (New York: Brentano's 1922), p.108
6. Edwin Black, War Against the weak (New York, NY: Four Walls Eight Windows, 2003), p.58

홀로코스트, 나치 그리고 히틀러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시도인 사회진화론을 다루는데 있어
서 이번 호에는 한 사람과 그를 따랐던 자들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
다.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988-
1945)와 나치 당이다. 이 내용은 앞선 우생학 칼럼(이충현)과 밀접하
게 연결되기에 같은 호에 다룬다.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나치에 대하여 다룰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홀로코스트(Holocaust)이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정부인 나치에 의해 계획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전쟁 동안에 소위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약 5,500만명 사망했다. 이 중 1,100만명은 홀로코스트로 죽었고, 그 중 600만명은 유대인, 500만명 이상은 슬라브족(주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다. 유대인 사망자는 당시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2/3에 해당되며, 이들 중 110만명이 어린이다.

1935년 나치는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적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는 유대인에 대한 독일 시민권의 박탈과 독일인과의 결혼 금지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는 우생학적 정책에 의거하여 열등한 유대인의 유전자가 우수한 아리안(Aryan, 인도-유럽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총칭, 독일인도 포함) 유전자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이와 같이 우생학적 사고의 극단적인 연장선의 결과이다. 독일인은 히틀러와 힘러(Heinrich Himmler, 1900-45)의 생각에 매료되어 인종 순결(racial purity)이라고 하는 그릇된 꿈을 완수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수단을 동원했다. 나치는 우수한 인종인 자신들을 높이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히틀러와 다른 리더들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들은 ‘존재를 위한 투쟁’이 삶의 법칙이라는 진화론적 역사관과 우생학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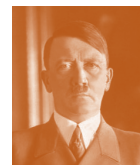
나치(Nazi)

나치는 독일국민에게 “투쟁”(Kampf)이 국가사회주의 이상의 중심 개념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나치는 찰스 다윈의 살기 위한 투쟁(struggle for existence)과 니체의 권력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투쟁(struggle as the manifestation of “will to power”)에 권위를 두었다. 즉, 사회진화론의 신뢰를 통해 인종차별을 투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¹

다윈의 “인간의 유래(Descent of Man, 1871)”는 나치의 “유래의 이론(Theory of Descent)”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었다. 이 둘은 모두 자연선택 과정으로 현재의 다양한 종들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나치는 자연선택을 견고한 자연법칙으로 보았으며, 자신들이 인류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다. 즉, 인종을 정제 과정으로 ‘가장 잘 적응된 자들 만이 살아남아 재생산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추려져 사라진다’는 식으로 사고한 것이다.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나치당의 기본 사상 및 정치운동이며, 약칭이 바로 나치즘이다)는 사회, 사람, 인종을 모델로 삼았다.

Adolf Hitler

히틀러의 인종에 대한 사고는 전적으로 진화론에 의지했는데 특별히 렌즈



그는 자신의 이 철학을 인류 역사에 적용시켜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항상 정복해왔으며, 이는 진화 법칙이 요구하는 바이며,

과학적 사실이라 여겼다.

(Fritz Lenz, 독일, 유전학자, 우생학 교수, 1887-1976)나 헤켈(Ernst Haeckel, 독일, 생물학자,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 진화론적으로 조작된 발생반복설 논문으로 유명함, 1834-1919)과 같은 다윈의 추종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우수한 인종'에 대한 그의 믿음은 각 인종이 진화론적으로 다르다는 적자생존의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히틀러가 '종의 기원' 원본을 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의 추종자들의 글은 읽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렌즈의 책을 출판한 리만(Julius F. Lehmann, 독일, 1864-35)이 히틀러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리만은 사회진화론, 우생학,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많은 책들을 출판했다. 히틀러에게 영향을 준 또 다른 사람은 진화론자 루데크(Kurt Lüdecke, 1890-1960)이다. 그는 우생학이란 용어를 탄생시킨 갈튼(Francis Galton, 영국, 1822-1911)의 책을 열심히 읽고 감명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진화론은 헤켈에 의해 시작되어 19-20세기 독일의 지적 역사에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되어, 결국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이어졌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진화론은 독일 전역에 더 빠르게 전파되었고 어떤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독일인들이 진화론을 생각할 때면 헤켈의 진화론적 해석을 떠올리곤 할 정도였다.

히틀러는 그의 글과 연설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강한자는 반드시 약한자를 다스리는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 철학을 인류 역사에 적용시켜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항상 정복해왔으며, 이는 진화 법칙이 요구하는 바이며, 과학적 사실이라 여겼다. 이런 진화론적 철학은 인종차별과 우생학으로 진행되었으며, 홀로코스트에서 극도에 다다랐다.

역사학 교수인 외이칼트(Richard Weikart, 1958-)가 "히틀러의 진화론적 윤리는 아무리 가증스러운 방법이라도 '최고' 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² 실제로 히틀러는 자신의 책인 '나의 투쟁(Mein Kampf, 히틀러의 자서전적인 책, 1925, p.132)'에서 우수한 자의 출생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미래는 슬픈 상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위

해 우수한 인종을 생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단순히 적용하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은 우생학 또는 응용 생물학(진화론) 하에서 행해지는 인위적 선택"이라고 믿었다.³ 그는 진화론적 믿음의 변호를 위해서 "선사시대의 조상인 원숭이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라고 하며 자신의 채식주의가 자신을 젊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⁴

히틀러는 "독일인의 초인간적 생물 진화"를 예언하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과학자들에 의해 "우수한 인종"이 창출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에게 개인은 인종에 비해 훨씬 덜 중요했으며, 어떤 열등한 인종은 인간 이하의 동물일 뿐이었다. 히틀러는 아프리카인들을 진화론적으로 아주 열등한 인종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이들을 더 낮게 바꾸려는 선교사들을 아주 경멸했다.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볼 때 그는 크리스천도 아니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반대했다. 그와 나치 리더들은 동양인들 역시 열등한 인종으로 여겼으나 전쟁이 승리로 마칠 때까지 동맹자로서 놔두기로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동양인의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유대인 저자 컴포트(Ray Comfort, 1949-)는 찰스 다윈에 의한 진화론 철학이 확장되어 히틀러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되었으며, 아리아 인종의 우월에 대한 이런 믿음은 제3 제국에게 우생학, 안락사, 강제 살균 및 인종 차별을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히틀러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화론적 생물학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독일 교회와 과학자들

독일이 종교개혁을 이끌고 개혁주의에서 세계적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옹호함에 따라 교회들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독일 사회는 세속화된 세계관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도덕적 기준과 삶의 가치에 있어서 과학과 물질주의에 의지했다. 루터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인 반 나치운동가인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독일, 1906-45)는 '교회는 그들의 머리를 잃어버렸고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버렸다고 했다.

독일 과학자들은 나치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그룹에 대한 만행에 과학적 지지를 보냈다. 나치 의약품과 과학은 홀로코스트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나치는 이를 가지고 괴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즉, 독일 과학자들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인종적 정책의 당위성과 수단을 제공한 셈이다.

나치의 생물학 교과서 속의 진화론

독일에 나치의 생각과 진화론적 사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교과서는 아주 중요했다. 이는 히틀러의 직접적인 진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⁵ 나치는 진화론이 그들 사상의 중요한 바탕이기에 교과서와 교실을 진화론 가르치는 도구로 이용했다.⁶ 또한 모든 선생과 교수가 진화론자가 되어 “히틀러의 인종적인 교리”에 헌신할 뿐 아니라 이런 목표를 순응하도록 모든 교과서를 재편성하도록 종용했다.⁷

나치와 진화론 사이에 밀접한 관계는 많은 생물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 5학년 교과서를 보면, “동식물의 모든 생물들은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한, “충분한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필요한 힘, 속도, 주의력,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이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어려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것은 모두 제거되며,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법칙은 생존 투쟁 위에 세워졌다.”⁸ 이와 같이 나치 하에 생물교과서는 진화론과 우생학을 실었으며, 진화론적 인종차별을 공공연히 가르쳤다. 결국 이 그릇된 사고가 보편적이 되자 홀로코스트까지 이르렀다. 히틀러가 언급한 것처럼 나치는 교과서를 통해 진화론으로 교리화하려고 했으며, 결국 독일 전 국가가 나치의 목표에 동조했다.

나치 리더와 히틀러의 측근들

아래는 나치의 리더이며 히틀러의 측근들의 배경이다. 히틀러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진화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었고, 그러므로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멩겔레(Dr. Josef Mengele, 1911–79): 다윈의 죽음의 천사. 나치 친위대(SS) 장교이자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나치 강제 수용소의 내과 의사. 수용소로 실려온 수감자들 중 죽일 사람과 강제 노역으로 넘길 지를 결정하였으며, 수용소 내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였다. 전쟁 당시에 젊었던 그는 나치의 정치 분위기와 진화론적 유전학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장애인

들은 아기를 낳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다.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이끌었다.



보어만(Martin Bormann, 1900–45): 히틀러의 오른팔. 히틀러의 보좌관들 중 수석인 당수부장을 역임하여 당 내부 업무를 총괄. 기독교 혐오자며 다윈과 히틀러의 사고를 받아들이며 인종차별자로 빠르게 변했다.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치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인종, 유대인, 슬라브인 등을 제거했다. 독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12년간 수많은 테러에도 가담했다.



힘러(Heinrich Himmler, 1900–45): 진화론자며 대량학살자. SS로 약칭되는 친위대 국가지도자로서 SS와 게슈타포를 지휘.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를 주도한 최고 책임자. 나치 강제수용소와 학살대인 특수작전집단 창설자. 최종 지휘 책임자로서, 600–1,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산업적 규모로 학살. 인종에 대한 우생학적 세계관이 그의 중심 사상이었으며, 유대인 뿐 아니라 슬라브인 등과 같은 “열등한 인종”들은 제거되거나 우수한 인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다.



괴벨스(Joseph Goebbels, 1897–1945): 홀로코스트의 아버지. 나치 독일에서 국가 대중 계몽선전장관의 자리에서 나치 선전 및 미화 책임자. 히틀러의 최측근. 선전 방법과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광신적인 사람들로 만들었다. 나치당의 뇌(brain)라고 할 만큼 가장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진화론적 믿음을 갖고 인종차별에 초점을 두며 우생학과 학살을 선동했다. 히틀러가 죽은 다음날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했다.



괴링(Hermann Goering, 1893–1946): 히틀러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자. 나치의 초기 당원. 초기 나치 돌격대의 지휘관. 게슈타포 창설자. 나치 공군 창설자. 나치의 두 번째 권력가로서 교회를 박해한 리더 중에 한 명이며, 진화론과 히틀러에 모두에게 영향을 받아 타락한 사람이다.



하이드리히(Reinhard Heydrich, 1904–42): 열렬한 반 기독교인이며 홀로코스트 기안자. 게슈타포 및 SS 보안방첩부의 수장. ‘프라하의 도살자’ 또는 ‘피에

젖은 사형집행인' 등의 별명. 그는 우생학과 진화론적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유럽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열등한 인종을 살해하는 나치의 계획의 선봉장이었다.



로젠베르크(Alfred Rosenberg, 1893-1946): 진화론의 “새(new) 복음의 학자”. 인종차별 주의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며 반유대주의와 반공주의를 공개적으로 천명. 1920년대 후반부터는 반유대주의 사상의 체계화와 보급을 위해 '유대인 문제 연구소'를 설립. 진화론적 인종 이론으로 이루어진 그의 책 '20세기의 신화(The Myth of the Twentieth Century, 1930)'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열등한 인종을 살해하는 나치의 목표를 많은 사람에게 설득시켰으며, 유대인 뿐 아니라 폴란드와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 홀로코스트에 영향을 주었다.



슈트라이허(Julius Streicher, 1885-1946): 진화론자며 반 카톨릭 사고를 가진 히틀러의 멘토.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감화되어(1921년) 나치당에 입당. 1923년 자신이 편집장을 맡아 반유대주의 보급을 위한 대중지를 창간. 1933년 나치당 집권 후 유대인 사업가나 상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상점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시했고, 유대 회당을 강제로 철거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진화론적 신뢰 하에 인종차별을 선전하는 주동자로서 두 인종이 결혼하면 인종 퇴화가 일어난다고 믿었다.

참조

1. Christian Zentner and Friedemann Bedürftig, eds., The Encyclopedia of the Third Reich, p. 86, New York: Da Capo Press, 1997.
2. "The Impact of Social Darwinism on Antisemitic Ideology in Germany and Austria, 1860-1945," in Jewish Tradition and the Challenge of Evolution, ed. Geoffrey Cantor and Marc Swetlitz.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3. Leon Goure, The Siege of Leningrad,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1.
4. George Stein, "Biological Science and the Roots of Nazism," American Scientist 76, No. 1 (Jan-Feb 1988): 50-58.
5. Cited in Christopher J. Klicka and Gregg Harris, The Right Choice: The Incredible Failure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ising Hope of Home Schooling (Gresham: Noble Publishing Associates, 1992), 89.
6. Gilmer W. Blackburn, Education in the Third Reich: A Study of Race and History in Nazi Textboo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7. William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0), 249.
8. Hermann Wiehle and Marie Harm, Lebenskunde für Mittelschulen. Funfter Teil. Klasse 5 für Mädchen (Halle: Hermann Schroedel Verlag, 1942), 168. [In English: Biology for Middle School.]



레벤스보른(Lebensborn, 1935-45): 진화론적 믿음으로 더 나은 나치를 사육하는 장소. 독일어로 '생명의 탄생, 생명의 샘,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인종적으로 우수한 애들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인간 교배 실험장. 히틀러가 1936년에 설립. 인종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된 여자와 주로 나치 장교들 사이에 아기를 낳게 하였다. 나치가 만든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꼽힌다.

결론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도 경쟁의 원리, 인종차별, 우생학적 사고 등은 인류 역사에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한국의 과거 역사에도 뛰어난 혈통을 이으려 했던 기록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진화론이 등장하며 이런 사고들이 '과학적'이고 '사실'이라는 확신으로 정당화되고 극단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리고 이 시도로 역사상 가장 잔학한 결과를 남겨놓았다.

나치는 독일을 지배했던 모든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도록 강요했다. 이런 교육은 그때 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실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화론적 사고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경쟁에 의해 생물의 종이 바뀐 예도 없고, 실제로 자연을 보면 경쟁보다는 같은 종 안에서는 서로 보호한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이를 사회에 적용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화론을 사실로 놓고 성경을 바꾸는 타협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위의 글은 아래 책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

Bergman, Jerry, Hitler and the Nazi Darwinian worldview: How the Nazi eugenic crusade for a superior race caused the greatest Holocaust in world history, Joshua Press, 2013.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ACT News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지난 9월 20-26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성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이번이 11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와 사실을 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다음 세대에 창조과학 사역과 창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타협이론으로 인한 어수선한 한국교계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안산동산교회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10월 4-10일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15차로 19개의 각 교회에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8일간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규화목공원, 페인트드 사막, 데스 밸리, 요세미티, 세코이아 등의 미국 국립공원과 세도나, 알라바마 언덕 등을 경유하며 성경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한국에서 모집하는데, 그런 만큼 다양한 분들이 참석합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까지 다양하게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부모, 자녀, 친지, 친구 등 전도를 위해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과 함



께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교회 출석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창탐이 신양인에게는 성경에 대한 확신과 이 세대를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비신양인에게는 믿음과 교회로 다가가는 열매를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커피 브레이크

지난 9월 18일 이재만 선교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노창수)의 커피 브레이크에서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크리스천 여성모임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진화론과 타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남겨놓았고,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사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만 회장 한국 방문

이재만 회장은 오는 11월 1일-12월 5일까지 약 한달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회, 학교, 단체에서 많은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역에 대한 모임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

2018/2019 ACT Schedule

11/1-12/5	한국 세미나, 이재만
12/5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7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10-12	창조과학탐사(하와이열방대학), 이재만
12/22-2/9	제 10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20차 유학생), 이재만
1/18-1/24	창조과학탐사 (대구성은교회, 행복사랑교회), 이재만
1/25-1/27	창조과학세미나 (LA충현선교교회), 이재만
2/10-2/16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청년부), 이재만
2/18-2/2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